

中 “고려는 中 출신 통치자의 정권” 왜곡

“왕건은 漢族 후예...고려가 고구려와 무슨 관계있나” 한·중 역사학계에 또 한차례 파문 예상

고려는 기자조선과 고구려에 이어 '중국 출신 통치자가 한반도에 세운 세번째 정권'이라는 식의 터무니없는 주장을 포함한 논문이 중국에서 나와 한·중 역사학계에 또 한차례 파문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주장은 고려 태조 왕건이 중국 한족(漢族)의 후예이고 고구려와 고려는 아무런 계승관계가 없다는 주장에 이어 나온 것이어서 중국의 고구려사·발해사 집필에 이은 또 한차례의 한국 고대사 왜곡 시도가 아닌가 하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논문의 저자가 지린

(吉林)성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연구원이고, 이 논문을 게재한 역사잡지가 지린성사회과학원 주관 아래 발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잡지 발행인이 바로 지린성 당위원회 선전부 부부장이기 때문이다.

특히 격월간 '동북사지(東北史地)' 2007년 3호(5~6월호)에 실린 '당(唐)나라 명종(明宗)이 고려 태조 왕건의 족적(族籍)을 밝혔다'라는 논문의 저자로 돼 있는 연구원 '스장러(史長樂)'가 본명이 아니라 가명인물의 이름일 가능성이 농후해 이 논문의 의도에 대한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 논문은 고려사 '태조세가(太祖世家)'

朝鮮古代歷史, 自箕子朝鮮至李氏朝鮮, 各代王朝的演變與發展, 似乎與中國相應的諸政權, 無不發生某種聯繫。

10世紀初期, 王建所創立的高麗政權, 主要是因半島歷史發展的必然結果。但是, 王建並非是半島土著新羅人的子孫, 而是來自中國淮河流域的漢人的後裔。有關於此一問題的謎底, 曾被後唐明宗李嗣源所披露, 并由宋太祖趙光義所佐證。二者披露與佐證, 又皆被鄭麟趾載入《高麗史·太祖世家》、《成宗世家》中。但是, 鄭麟趾却稱: “高麗之先, 史闕未詳”, 而在《高麗史》過程中, 對唐明宗和宋太祖所言王建之祖籍, 進而由其祖籍, 可確定其族籍, 均未置一詞, 令人大惑不解。如若將此一問題, 同王建為何定國號為高麗, 一併進行深入探討, 便可尋出其端倪。但是, 朝鮮歷代的史學家們, 除了鄭麟趾作了載錄而外, 余者對唐明宗和宋太祖的披露、佐證、皆避而不談, 諱莫如深。

에 태조 16년(서기 933년) 당나라 명종이 사원(李嗣源)이 고려에 책봉사를 보내 왕건에게 직접 전달했다는 책봉조서의 내용 가운데 일부를 그같은 강변에 대한 증거자료로 제시했다.

“주몽이 개국한 땅의 상서로운 조짐을 좇아 그 군장이 되고 기자(箕子)가 이북

한 번국(蕃國)의 자취를 밟아 행복과 화락(和樂)을 꾀도다”라는 대목과, “경(卿)은 장회(長淮)의 무족(茂族)이며 창해(漲海)의 웅번(雄蕃)이라”고 하는 대목이다.

(사진) ‘주몽이 개국한 땅’과 ‘기자가 이북한 땅’에 대한 언급을 “한반도 역사에서 기자와 주몽에 이어 또 한 사람의 중국 출신 통치자가 새로운 고려정권을 세우고 임금이 되어 행복과 화락을 가져다 주었다”는 뜻이라고 논문은 풀이했다.

동북사지는 중국사회과학원 변경사지연구실에서 추진한 동북공정의 연구과제를 수행한 학자들이 대거 편집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특히 발행자는 장푸여우(張福有) 지린성 당위원회 선전부 부부장이고, 고문은 전 현직 변경사지연구실 주임들이 마다정(馬大正)과 리성이다.



5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6차 아시아협력대화(ACD) 외교장관회의의 합동기자회견서 송민순 외교교통상부장관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 정부는 여수박람회와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에 대한 참가국의 협조를 당부했다. /연합뉴스

ACD회의장 ‘여수’ 홍보열기 후끈

송민순 외교 등 참가국에 엑스포·동계올림픽 유치 지지 호소

범아시아 지역을 포괄하는 유일한 지역협의체로 5일 오전 개막한 아시아협력대화(ACD) 제6차 외교장관회의가 여수 엑스포와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홍보를 위한 공간으로 적극 활용되고 있다.

특히 4일 발표된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현지 실사 평가보고서에서 평창이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점이 정부 당국자들의 ‘바람’ 발걸음을 가볍게 하고 있는 분위기다.

30여 참가국 가운데 엑스포 개최를 결정하는 국제박람회사무국(BIE) 회원국이 19개국,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을 보유한 국가가 13개국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는 물론 송민순 외교교통상부 장관, 그리고 정부 당국자들은 전체회의와 장관급 양자회담, 비공식 협의공간 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외교채널을 활용해 두 행사의 한국 유치를 홍보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

한 총리는 이날 개회사에서 ‘아시아의 정교박람회’로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포부를 밝히면서 2012년 여수 엑스포와 2014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각국 정부가 적극 지지해줄 것을 호소했다.

송 장관도 이날 전체회의에 이어 분 단위로 쏜개진 오만, 카타르, 스리랑카, 파키스탄, 사우디, 러시아 외교장관 등과 양자회담하면서 여수 엑스포와 평창 올림픽을 알리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이밖에 행사장 내에 설치된 여수 엑스포와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부스도 제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는 후문이다. 참가국 대표들도 한국의 앞선 정보기술(IT) 현황을 살펴볼 수 있는 IT관과 함께 두 행사장 홍보부스를 찾아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정부 관계자가 전했다.

김회장이 직접 쇠파이프 휘둘러

‘보복폭행’ 김승연회장 구속기소... 조폭에 1억여원 제공 ‘늑장 수사·외압의혹’ 관련 경찰 지휘부 곧 소환 조사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보복폭행 과정에서 쇠파이프 등 흉기를 사용하고, 폭행에 동원했다 캐나다로 도피한 조폭 두목에게 1억여원의 김 회장 개인 돈이 제공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서법정 부장검사)는 5일 김 회장과 진도 경호과장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폭행 가담자를 동원한 협력업체 대표 김모씨와 폭행에 가담한 권부선수 출신 청담동 유형업소 사장 장모씨 등 3명은 불구속기소하고, 직접 폭력을 휘두른 경호원, 협력업체 직원, 클럽 종업원 등 7명은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그러나 사건의 발단이 됐던 김 회장의 차남은 피해자들과 합의를 한데다 본인도 피해자이고 아버지가 구속기소된 점 등을 참작해 기소유예하는 등 가담 정도가 경미한 7명은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김 회장 일행에게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면서 적용했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5개 혐의(집단 흥기 상해, 집단 흥기 폭행, 공동상해, 공동폭행, 공동감금) 및 업무방해죄를 그대로 적용했다.

검찰은 아울러 비서실장 김모씨가 사건 직후 김 회장의 개인 자금 1억1천만원을 현

금으로 한화리조트 감사 김모씨를 통해 판교와 두목 오모씨에게 지급한 것을 확인하고, 김 회장의 자금 제공 직접 지시 및 오씨의 캐나다 도피 경위나 도피자금 제공 여부 등에 대해서는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를 미루고 계속 수사하기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지난 3월8일 오전 7시에 자신의 차남이 서울 청담동의 한 주점에서 다른 유형업소 종업원들과 시비가 붙어 계단으로 굴러 전치2주의 상처를 입자 직접 진 과장 등을 동원해 보복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피해자와 신고자 진술, 112 신고내용 등을 종합할 때 김 회장이 쇠파이프와 전기충격기를 사용해 폭행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한 경찰의 늑장수사 및 외압 의혹 수사에 집중해 압수물 분석 등 기초조사가 끝나는 대로 김회장에 서울경찰청 수사부장과 장희근 남대문경찰서장 등에 대한 소환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검찰은 또 ‘부적절한 외압·개입’ 의혹으로 최근 자택 등을 압수수색 당한 최해복도 입에 경찰청장 유시왕 한화그룹 고문, 이택순 경찰청장 등도 통신사실 조회 등을 통해 개입 정황이 드러나면 소환조사한다는 방침이다.



5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서 서법정 형사 8부 부장검사가 김승연 한화그룹회장의 보복폭행 수사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검찰은 브리핑에서 김 회장과 진도 경호과장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국방부, 종교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협의중

국방부가 실무차원에서 종교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허용이 시시상조라는 의견을 모으고 이를 청와대 관계부서와 협의한 것으로 5일 밝혀졌다.

국방부 김화석 인력관리팀장은 “지난 4월 초부터 청와대 관계부서와 국방부 실무자들이 종교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도입에 관한 실무협의를 해왔다”면서 “이 때 국방부는 지금은 도입시기가 아닌 것 같다는 실무자 수준의 의견을 개진했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당시 찬·반 양론의 장단점을 분석한 실무협의 회의자료를 만들어 회담은 했지만 국방부 명의의 정식 보고서를 제출한 적은 없다”면서 “대체복무 도입 여부는 계속 협의해 가급적 이른 시일 내 결론을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달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문제를 담은 ‘2007~2011 인력정책기본계획’을 보고하긴 했지만 이와 관련해 어떠한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다

日, ‘목선 탈북자’ 한국 직접 이송

일본 정부가 지난 2일 아오모리(靑森)현 후카우리(深浦)항에 목선을 타고 도착한 탈북자 4명을 제3국을 경유하지 않고 한국으로 직접 보내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나혼게이치(日本經濟新聞)가 5일 보도했다.

신문은 이에 대해 한국 정부도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일본 정부가 이런 방침을 정한데는 탈북자에 대한 ‘인도적 대응’을 내세워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전략이 담겨진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또 이번 탈북자 입항 및 한국 인도를 계기로 일본을 1차 목적지로 하는 탈북자들이 증가할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본 정부는 탈북자 가운데 1명이 각성체를 소지하고 있던 점으로 미뤄 향후 마약거래를 목적으로 한 일본 입항이나 탈북자를 가장한 북한 공작원 침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일본 정부는 이번 4인 가족 탈북자에 대한 조치가 지난해 마련된 북한 인권법에 따른 첫 적용사례인 만큼 향후 유사 사례의 처리기준이 될 것으로 보고 관련 법에 따라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검토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직수입 앤틱 전문매장

로템갤러리

가구의 가격을 한층 높여 드립니다.

각종 고급 침대

● 진열상품 30%~최고70% ● 특별기획상품행사

소파

식탁

찾아오시는 길

▶ 남양주 ▶

▶ 상생디지털프라자 ▶ 현대자동차 ▶ 미래아파트

대표전화: (062) 653-4022

물류센터: 담양군 창평면 유천리 253-1

영어 자동기억시스템!

10년 영어공부 1년이면 OK!

[성공사례 | 퍼펙트 AMS]

◆은상수상장 학생 조소현
(13세, 00초등학교 6학년 인턴)

“AMS! 나의 목적 달성 도우미”

안녕하세요? 저는 조소현이라고 합니다. 이제 6학년이 되는데요, 처음엔, “그냥 기계겠지”라는 생각으로 흥미를 느끼지 못한 채 진심으로 읽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매주 보는 학원(영어) Quiz 시험 성적이 눈에 띄게 확 좋아진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그 길로 학원을 중지하고 AMS 공부만 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어학교재엔 영어뿐만 아니라, 일상 상·사회의 기능이 있어 여러모로 도움이 많이 되고, 각종 영어 능력시험 등은 속원말로 거저먹었습니다. 3개월 동안 하루에 2시간 30분에서 3시간 정도 열심히 공부하여 국가공인 말하기 능력시험인 ESPT에서 471점이라는 점수를 받았습니다.

◆은상수상장 학생 신지영
(16세, 00중학교 3학년 경기도)

“영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크나큰 행운 AMS”

AMS는 짧은 시간에 비해 그 효과는 놀라웠습니다. 제가 배운 AMS 과정은 지금도 다 기억에 생생히 남아있으며, AMS를 배우기 전 보다 발음이 훨씬 좋아진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영어시간에 영어문장을 읽으면 친구들이 저보고 영어 발음이 좋고, 영어를 잘 읽고 이해한다고 부러워 합니다. 저도 좋아하고 부모님 등 또한 좋아 할 수 있는 말씀까지 들어있어 저의 부녀는 매일 말씀을 틀어 놓으며 영어공부를 합니다. AMS를 열심히 하면서도 안타까운 것은 많은 친구들이 AMS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좋은 어학교재인 만큼 빠르게 홍보는 되겠지만... 좋은 영어 공부법은 서로 공유해야하니까요. 지금도 제가 우연히 AMS를 발견한 것을 행운으로 생각합니다.

AMS의 활용분야

AMS (주)AMS교육

대표 전화 1600-0596